

#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들이 올려가는 만선의 배고동 소리와 더불어 펼쳐진 물고기대풍, 희한한 《이채어경》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회주의바다향기 차넘치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 사업소와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현지도하시였다



## 2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와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의 구내에 차넘치는 물고기비린내, 사회주의바다향기를 맡으니 만시름이 풀린다고 하시면서 정말 희한한 풍경, 기막힌 풍경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르전사들은 기적같은 물고기잡이성과를 통하여 당정책은

곧 과학이고 승리라는것을 확증하고 당의 권위를 옹호하였으며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과 신뢰심을 지키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의 수산부문에서 자그마한 성과를 놓고 만족해할 때 인민군대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르전사들은 사회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비교조차 할수 없는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그 비결은 황금해력사를 창조하는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실천으로 받아들여가는 길에

서 비상한 각오와 결사판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한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물고기를 잡을수 있도록 과학수산을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생산과 경영활동의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선진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참치양, 기망일 어획량을 늘일데 대한 문제,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300일이상의 출어를 보장할데 대한 문제, 조급증 및 련동시설들을 그르히 갖추어놓을데 대한 문제, 어로공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들릴데 대한 문제, 수산사업소별, 배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등 수산부문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물고기는 가까운바다에서도 잡고 먼바다에서도 잡으며 나가면서도 잡고 들어오면서도 잡아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주자고 간곡히 호소하시였다.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와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불철주야의 현지도강행군 길에서 자기들의 일머리에 몸소 뛰어오시어 크나큰 사랑과 영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황금해력사창조의 앞장에서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더 높이며 즐거차게 올려갈 불라는 맹세를 다지

본사정치정보단

